

# 접속문 어미 '-고'의 의미 기능 연구(1)

통사적 분류의 의미적 의존성을 중심으로

박 종 갑\*

< 차례 >

- |                          |        |
|--------------------------|--------|
| 1. 들어가기                  | 3. 마무리 |
| 2. '-고'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의존성 |        |

## 1. 들어가기

접속문 어미 '-고'의 접속 기능에 대해서는 통사 및 의미론적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통사적 관점에서는 대등 접속문 어미의 하나로 일컬어졌고, 의미적 관점에서는 나열형 어미의 하나로 파악되어, 그 구체적인 의미 기능과 제약을 밝히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다.

필자는, '-고'의 의미 기능과 관련된 연구로,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고는 첫 번째 영역을 다룬 것이며, 나머지는 각각 다른 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첫째, 어미 '-고'를 비롯한 몇몇 어미로 이뤄진, 이른바 대등 접속문이 갖는 통사적 특성을 밝히려 한 앞선 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그 통사적 특성이, 적어도 {고}접속문<sup>1)</sup>의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해당 문장이 가진 의미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밝힌다.

둘째, 접속문 어미 '-고'의 세부적인 의미 기능을 고찰한 앞선 연구 결과들을 검토하여, 그 의미 기능의 유형 분류가 가진 문제점들을 살핀 다음, 의미

\* 영남대학교 교수

1) 접속 어미가 '-고'인 접속문을 가리키는 뜻으로 쓴다.

· 화용론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삼아, 접속문 어미 '-고'의 의미 기능 체계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셋째, 접속문 어미 '-고'가 구체적인 의미 기능을 가지는 데 따른 제약 관계를 정리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여 '나열'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도상성의 관점에서 고찰한 다음, 그것에 바탕을 두고, 각 의미 기능 상호 간의 체계적 관련성을 구명한다.

## 2. '-고'의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의존성

통사적 관점에서 국어 접속문의 분류를 다룬 것으로는 여러 앞선 연구들이 있다. 그 중, 김영희(1988)는 국어 접속문을 등위 접속문<sup>2)</sup>과 종속 접속문으로 대별하고, 등위 접속문만이 가지는 통사적 특성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어, 이와 관련된 영역에서 대표적인 업적이라 생각된다. 국어 등위 접속문은 '대칭성'이라는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통사적 검증 기준으로 확인해 보이고자 한 것이다.

- ① 선·후행절의 자리 바꾸기
- ② 선행절 옮기기
- ③ 접속사 되풀이
- ④ 내포 접속문 구성
- ⑤ 재귀 대명사화
- ⑥ 후행절 주제어

김영희(1988)는 '-고'를 비롯한, 몇몇 접속문 어미들로 이뤄진 접속문들이 위의 세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 주려 한 것인데, {고}접속문의 경우, 그것의 의미 기능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러한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어 접속문의 분류에 의미적 특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필요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제 이들을 차례대로 소개하고, {고}접속

2) 여기서의 등위 접속문은 대등 접속문과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문을 중심으로,<sup>3)</sup> 이러한 사정을 살펴본다.

① “선·후행절 자리 바꾸기”는, 등위 접속문은 선·후행절의 자리를 바꾸더라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 (1)(a) 봄이 오니까 꽃이 핀다.
- (b) 꽃이 피니까 봄이 온다.
- (2)(a) 철이가 책을 읽고 명이가 음악을 듣는다.
- (b) 명이가 음악을 듣고 철이가 책을 읽는다.

(1)의 ‘-니까’는 선·후행절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선·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면, 그와 같은 인과 관계가 반대로 되고, 결과적으로 의미 변동이 생긴다. 그러나 (2)의 {고}접속문은 선·후행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아무런 의미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희(1988)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접속문은, 남기심 엮음(1994)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모두가 이른바 ‘공간적 나열’<sup>4)</sup>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들이다. 소위 ‘계기적 나열’로 해석되는 경우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3)(a) 성희는 돈을 챙겨 넣고 옷을 갈아 입었다.
- (b) 성희는 옷을 갈아 입고 돈을 챙겨 넣었다.

(3)의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세계를 기술하고 있다. 하나는 돈부터 먼저 챙겨 넣고 옷을 갈아 입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옷부터 먼저 갈아 입고 돈을 챙겨 넣은 경우여서, 선·후행절의 위치가 바뀌면 문장 전체의 의미는 달라진다.

- (4)(a) 철호는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찾아 갔다.
- (b) 철호는 목적지를 찾아 가고 지도를 보았다.

3) 남기심 엮음(1994), 허 응(1995) 등에는 {고}접속문의 많은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중 일부는 이들로부터 취한 것이다.

4)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접속문 어미 ‘-고’가 ‘나열’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그 구체적인 의미 기능으로, 동시(적) 나열, 계기(적) 나열, 공간(적) 나열 등을 들고 있다. 동시적 나열은 선·후행절이 지시하는 각 사태가 동일한 시간대에 일어난 경우를, 계기적 나열은 두 사태가 차례대로 일어난 경우를, 그리고 공간적 나열은 선·후행절이, 시간적 관계와 무관하게, 단순하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4)의 두 문장은 선·후행절의 위치를 바꾸면, 중의성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경우의 예이다. 첫 번째 문장은 다음의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된다.

- (5)(a1) 철호는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 갔다.
- (a2) 철호는 지도를 본 다음 목적지를 찾아 갔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첫 번째 해석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한 가지 뜻으로만 해석되므로, 앞의 두 문장은 선·후행절의 위치를 바꾼 결과로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다.

- (6)(b1)\* 철호는 목적지를 찾아 가면서 지도를 보았다,
- (b2) 철호는 목적지를 찾아 간 다음 지도를 보았다.

다음의 (7)은 동시적 나열과 계기적 나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의미는 (8)처럼 바꿔 쓸 수 있다. 아래의 두 의미 기능 중, 동시적 나열인 첫 번째 경우는, 선·후행절의 위치를 바꿔도 아무런 개념적 의미의 변동이 없지만, 두 번째 경우는 그렇지 않다.

- (7) 종필이는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 (8)(a) 종필이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 (b) 종필이는 춤을 춘 다음 노래를 불렀다.

따라서 선·후행절 자리 바꾸기는, 공간적 나열과 동시적 나열, 두 가지 유형의 의미 기능에 한하여 성립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선행절 옮기기”는, 등위 접속문은 선행절을 후행절의 구성 성분들 사이에 끼워넣을 수 없다는 점을 논급하기 위한 항목이다.

- (9)(a) 날이 풀리니까, 인파가 붐빈다.
- (b) 인파가, 날이 풀리니까, 붐빈다.
- (10)(a) 가을비가 내리고, 낙엽이 떨어진다.
- (b)\* 낙엽이, 가을비가 내리고, 떨어진다.

(9)는 종속 접속문의 예이고, (10)은 등위 접속문의 예인데, 전자는 선행절 옮기기가 가능한 데 비해, 후자는 불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고}접속문의 의미 기능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 (11)(a) 정호가 가고, 지영이가 곧바로 왔다.
- (b) 지영이가, 정호가 가고, 곧바로 왔다.

위 문장 (11a)는 계기적 나열로 해석되는 경우인데, 선행절을 후행절 가운데로 이동시킨 결과의 (11b)가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선·후행절이 시간적 순서에 초점을 두어 연결될 경우, 이와 같은 현상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 앞의 (10)도 다음과 같이 바꾸면, 매우 자연스런 문장으로 느껴진다.

- (12)(a) 가을비가 내리고, 낙엽이 곧바로 떨어졌다.
- (b) 낙엽이, 가을비가 내리고, 곧 바로 떨어졌다.

이른바 '동시적 나열'에 해당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접속 어미가 '-면서'인 다음 문장은 전혀 어색함을 느낄 수 없다.

- (13)(a) 선영이<sub>j</sub>가 춤을 추면서, <sub>0j</sub> 노래를 부른다.
- (b) 선영이<sub>j</sub>가 노래를, <sub>0j</sub> 춤을 추면서, 부른다.

이른바 선행절 옮기기와 관련된 논의는 공간적 나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접속사 되풀이”는 셋 이상의 접속절들로 구성되는 접속문이 있을 때, 의미·통사적 기능과 형태가 동일한 특정 접속사(접속 어미)가 최종 접속절을 뺀 나머지 선행절 모두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종속 접속문에서는 전혀 불가능하고, 등위 접속문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 (14)(a) 비는 내리고 날은 어둡고 갈 데는 없다.
- (b) 돌이 낚든지 석이가 낚든지 만이가 낚는다.
- (c) 명이가 노래를 부르며 순이가 춤을 추며 정이가 기타를 친다.
- (d) 구름이 끼었다가 눈이 흘날렀다가 해가 났다가 ...

위 (14)의 문장이 자연스런 문장임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속 접속문인 아래 (15)의 문장이 ‘전혀 불가능한 문장’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 (15)의 문장이 덜 자연스러운 점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전혀 수용 불가능한 문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sup>5)</sup>

- (15)(a)\* 비가 와서 땅이 질어서 신발이 더러워졌다.
- (b)\* 가을이 되어야 단풍이 들어야 경치가 좋다
- (c)\*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자 주인이 놀랐다.
- (d)\* 차가 빠지도록 군중이 길을 내 주도록 경찰이 교통정리를 한다.

{고}접속문의 서술어가 동작 동사인 경우, 계기적 나열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미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선·후행절의 동일 성분내 동일한 보조사가 통합되면, 공간적 나열의 의미 기능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남기심 엮음,1994). 아래 예문에서 각각의 (a)는 계기적 나열의 의미 기능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보조사가 실현된 (b)는 그렇지 않다.

- (16)(a) 선영이가 가고 영선이가 왔다.
- (b) 선영이는 가고 영선이는 왔다.
- (17)(a) 선영이가 가고 영선이가 갔다.
- (b) 선영이도 가고 영선이도 갔다.

그런데, {고}접속문의 경우, 접속사 되풀이의 예문으로 제시된 앞의 (14a)에도 보조사 '-는'이 선·후행절의 주어에 통합되어 있다. (18)로 다시 인용한다.

- (18) 비는 내리고 날은 어둡고 갈 데는 없다.

접속사 되풀이가 자연스러워 보이려면, 이러한 방식으로 보조사가 통합되어 있어야 한다. 즉, 위의 (16), (17) 예문에 접속사 되풀이 현상을 부과하면, (a) 예문보다는 (b)예문에서 더 자연스러움을 느낀다.

- (19)(a)(!) 선영이가 가고 영선이가 오고 정신이 없구나.
- (b) 선영이는 가고 영선이는 오고 정신이 없구나.
- (20)(a)(!) 선영이가 가고 영선이가 가고 모두 다 가는구나.

---

5) 어릴적 할머니 팔을 베고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잠은 자 본 적이 있는 세대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약간의 리듬감이 있는, 율문 형식의 이야기가 기억날 것이다: “옛날 옛적에, 콩때 말년에, 보리때 승년(흥년)에, … 승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산에 가니까…” 이런 점을 보면, (15) 문장들을 비정형적인 문장으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b) 선영이도 가고 영선이도 가고 모두 다 가는 구나.

이렇게 보면, 접속사 되풀이 현상도, 적어도 {고}접속문에 한정하여 보면, 공간적 나열인 경우에 자연스럽게 성립된다는 점에서, 문장의 의미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김을 알 수 있다.

④ “내포 접속문 구성”은 접속절 모두에 의미·통사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동일한 접속사가 되풀이되면서, 다른 보문소 없이 바로 상위문에 내포되는 구조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접속사 되풀이 현상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등위 접속문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 (21)(a) 비는 내리고 날은 춥고 하다.
- (b) 돌이가 남든지 석이가 남든지 한다.
- (c) 명이가 노래를 부르며 순이가 춤을 추며 한다.
- (d) 구름이 끼었다가 눈이 흘날렸다가 한다.
- (22)(a)\* 비가 와서 땅이 질어서 한다.
- (b)\* 가을이 되어야 단풍이 들어야 한다.
- (c)\*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자 한다.
- (d)\* 차가 빠지도록 군중이 길을 내 주도록 한다.

위에 제시된 두 유형의 문장의 정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쉽게 수긍된다. 첫 번째 유형의 문장은 각 절이 의미적으로 어느 정도 완결성이 있는데 비해, 두 번째 유형의 문장은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22a)의 경우는, ‘-아서/-어서’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원인에 해당되는 절만 있고 결과에 해당되는 절은 없는 상태다. 원인을 나타내는 절만으로는 의미적인 완결성을 획득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것이 그대로 상위절에 내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6)</sup>

그리고 이 경우도 {고}접속문으로 한정하여 보면, 공간적 나열의 의미 기능으로 이해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 (23)(a) 그가 집을 사고 차를 샀다.
- (b) 그가 집도 사고 차도 샀다.

6) 필자가 보기로는, (15)의 문장이 (22)의 문장보다 더 자연스럽다. 그 이유는 (15)에는 후행절이 구비되어 있어, 의미적 완결성이 있지만, (22)는 선행절에 해당되는 부분만 반복된 상태에서 그대로 상위절에 내포되어, 의미적 완결성이 없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위 예문 중, (a)는 계기적 나열의 의미로, (b)는, 보조사의 쓰임에 의해, 공간적 나열의 의미로 해석된다. 다음과 같이, 이 둘을 내포 접속문 구성으로 만들면, (b)의 경우는 매우 자연스러운데 비해, (a)의 경우는 부자연스럽다.

- (24)(a)(!) 그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했으니 이제 여유만만해 보이겠지.
- (b) 그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했으니 이제 여유만만해 보이겠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동시적 나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내포 접속문 구성도 의미 기능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김을 알 수 있다.

⑤ “재귀 대명사화”에서는, 등위 접속문은 선·후행절에 사람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동일 지시 관계의 주어가 실현되어 있을지라도, 선·후행절의 주어어느 것도 재귀 대명사로 바뀔 수 없음을 보이고 있다.

- (25) 순이가 한 손에 꽃을 들고 순이가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 (26)(a)\* 순이가 한 손에 꽃을 들고 자기가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 (b)\* 자기가 한 손에 꽃을 들고 순이가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고}접속문에서는 재귀 대명사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종속 접속문에서는 대개 선행절의 주어가 재귀 대명사로 바뀐다는 것이다.

- (27) 철이가 지나까 철이가 심술을 부린다.
- (28)(a)\* 철이<sub>j</sub>가 지나까 자기<sub>j</sub>가 심술을 부린다.
- (b) 자기<sub>j</sub>가 지나까 철이<sub>j</sub>가 심술을 부린다.

앞의 {고}접속문 (25)는 공간적 나열의 의미인데, 이러한 재귀 대명사화는, 앞의 여러 검증 기준들과는 달리, {고}접속문의 여러 의미 기능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간적 나열 뿐만 아니라, 계기적 나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다음이 그 예다.

- (29) 영호는 학교에서 일을 다 마치고 영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 (30)(a)\* 영호는 학교에서 일을 다 마치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왔다.
- (b)\* 자기는 학교에서 일을 다 마치고 영호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여간, 다음과 같이, 재귀 대명사화가 적용된 등위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는 아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후자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럴 듯해 보이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31)(a)\* 자기가 한 손에 꽃을 들고 순이가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b) 자기가 지나까 철이가 심술을 부린다.

그러나 여기에도, 부수적인 것이지만, 의미 기능에 따른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종속 접속문의 경우, 선행문이 후행문 속으로 삽입되어, 내포문 형식을 취한 다음, 재귀 대명사화가 적용되면, 그 결과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다음이 그 예다.

- (32) (a) 철이가 지나까 철이가 심술을 부린다.  
 → (b) 철이가 [철이가 지나까] 심술을 부린다.  
 → (c) 철이가 [자기가 지나까] 심술을 부린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듯이, 등위 접속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과정으로 재귀 대명사화가 이뤄지면, 계기적 나열인 경우에는 성립 가능한 문장이 된다.

- (33) (a) 영호가 학교에서 일을 다 마치고 영호가 집으로 돌아왔다.  
 → (b) 영호가 [영호가 학교에서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 (c) 영호가 [자기가 학교에서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공간적 나열인 경우에는, 그나마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 (34) (a) 순이가 한 손에 꽃을 들고 순이가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 (b) 순이가 [순이가 한 손에 꽃을 들고]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 (c)\* 순이가 [자기가 한 손에 꽃을 들고] 한 손에 가방을 들었다.

⑥ “후행절 주제어”는, 등위 접속문은 선·후행절 사이에 대칭성이 있어, 후행절에서만 주제어가 실현될 경우, 비문이 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다음에서 보듯이, 종속 접속문인 경우에는 후행절의 주어에만 보조사 {는}이 통합된 결과가 정문이 되지만, 등위 접속문인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고 했

다.

- (35)(a) 가을이 되니 날은 시원하다.
- (b) 내가 들어서자 주인은 입을 다물었다.
- (c) 내가 다그칠수록 그는 시치미를 뚝 떤다.
- (36)(a)\* 몸이 튼튼하고 마음은 울퉁다.
- (b)\* 천지가 칠혹이며 비는 역수같이 퍼붓는다.
- (c)\* 함박눈이 내리거나 싸락눈은 내린다.

그러나 (36)의 (a,b) 두 문장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비문이 된다는 판단에 동의하기가 매우 힘들다. 다음과 같이 약간의 변화를 주어 보면, 전혀 비문이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 (37) 저 집 아들은 몸이 튼튼하고 마음은 참 울퉁다.

(36)에서, (c)가 비문이 됨은, (a,b)의 ‘-고’와 ‘-며’가 ‘연접’의 의미인데 비해, ‘-거나’는 ‘이접’의 의미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 때문에 (c)는 선·후행절 모두에 주제어가 실현되어도 비문이 되어 (a,b)와는 구분된다. (36)의 세 문장과 관련하여 필자의 직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38)(a) 몸{이/은} 튼튼하고 마음{이/은} 울퉁다.
- (b) 천지{가/는} 칠혹이며 비{가/는} 역수같이 퍼붓는다.
- (39)(c1) 함박눈이 내리거나 싸락눈이 내린다.
- (c2)\* 함박눈은 내리거나 싸락눈은 내린다.
- (c3)\* 함박눈이 내리거나 싸락눈은 내린다.
- (c4)\* 함박눈은 내리거나 싸락눈이 내린다.

이렇듯이, 이른바 후행절 주제어와 관련된 현상은, 동일하게 등위 접속문인 경우에도, 접속문 어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만일, {고}접속문으로 한정하여 보면, 필자가 판단하기로는, 그 의미 기능이 어떤 것이냐에 관계 없이, “후행절 주제어”가 가능하다.

- (40) 교수가 강의를 하고 조교가 출석을 점검했다.
- (41)(a) 교수가 강의를 할 때에 조교가 출석을 점검했다.
- (b) 교수가 강의를 한 다음 조교가 출석을 점검했다.

위의 (40)은 (41)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동시적 나열도 되고 계기적 나열도 되는데, 주제어 실현과 관련된 정형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간적 나열인 앞의 (38)과 동일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정문이 된다.

(42) 교수(가/는) 강의를 하고 조교(가/는) 출석을 점검했다.

지금까지, {고}접속문을 중심으로, 김영희(1988)에서 등위 접속문의 고유 특성으로 설정되어 논급된, 여섯 가지 통사적 검증 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고}접속문은, 그 의미 기능이 대개 공간적 나열, 계기적 나열, 그리고 동시적 나열 등의 세 가지로 언급되어 왔는데, 이 세 가지 의미 기능에 따라, 앞의 여섯 가지 기준의 대부분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후행절의 자리 바꾸기”와 관련된 논급은 동시적 나열이나 공간적 나열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계기적 나열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둘째, “선행절 옮기기”와 관련된 논급은 공간적 나열일 때에만 적용된다.

셋째, “접속사 되풀이” 및 “내포 접속문 구성”이 이뤄진 {고}접속문은, 상대적으로, 공간적 나열로 해석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논급은, 의미 기능에 따라 상대적인 차이가 있다.

넷째, “재귀 대명사화”와 관련된 논급은 {고}접속문 전반에 적용되나, 여기서도 의미 기능에 따라 부수적인 차이가 있다.

다섯째, “후행절 주제어”와 관련된 논급은 {고}접속문의 경우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 3. 마무리

본고는, 필자가 '-고'의 의미 기능과 관련하여 다루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 영역 중, 첫 번째 것으로, 접속문 어미 '-고'를 비롯한 몇몇 어미로 이뤄진, 이른바 대등 접속문이 갖는 통사적 특성을 밝히려 한 앞선 연구 내용을 검토하여, 그 통사적 특성이, 적어도 {고}접속문의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해당 문장이 가진 의

미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의존적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등 접속문의 통사적 특징을 심도있게 다룬 김영희(1988)를 관련 영역의 대표적인 업적이라 보고, 대등 접속문의 통사적 고유 특성이라고 한 대칭성이, {고}접속문의 경우에는, 해당 문장의 의미 기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 참 고 문 헌

- 강우원(1991). 우리말의 이음구조 연구. 박사논문. 부산대 대학원.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김영희(1988). 등위 접속문의 통사 특성. <<한글>>, 201·202(합본). 한글학회.
- 남기심 위음(1994). <<국어 연결어미의 쓰임>>. 서광학술자료사.
- 박종갑(1987). '고'의 접속기능과 제약. <<영남어문학>>,14. 영남어문학회.
- 유현경(198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191. 한글학회.
- 윤평현(1989). 국어의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 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박사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최재희(1985). '고' 접속문의 양상. <<국어국문학>>,94. 국어국문학회.
- 최현배(1955). <<우리 말본>>. 깊은 고친판. 정음사.
- 허 웅(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